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2,382천 km ²	G D P	1,511억 달러 (2010년)
인구	35.9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4,209달러 (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lgerian Dinar (AD)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74.39 (2010년 평균)

- 알제리는 인구 3천 6백만 명, 한반도의 10배 크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면적,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경제대국임.
- 1999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2009년에 3선에 성공한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회교무장단체에 대한 사면과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는 등 그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여 왔음.
- 2011년 1월에 고실업률 및 물가상승 등에 항의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비상사태 해제 조치, 경제적 유화정책 발표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으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음.
-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상황이 국제유가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 경제

□ 경제성장 회복세 지속

- 알제리는 석유산업과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성장은 국제 유가와 원유 생산량, 강수량의 변화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석유산업은 GDP의 46%, 재정수입의 77%, 수출의 98%를 차지하여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 농업은 GDP의 8%, 전체 고용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콩 등임.
- 2003~07년까지 국제유가 상승, 농작물 작황 호전, 정부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연평균 4.8%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6년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친 것은 관련 설비의 재정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2008년과 2009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원유가격 하락과 원유 생산량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둔화되었으나, 2010년에는 원유가격 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가로 3%대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1.8	3.1	3.0	2.1	3.3
재정수지 / GDP	13.9	6.1	9.0	-5.5	-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3.5	4.4	5.7	4.3

자료: IMF, EIU.

- 201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인프라 개발 등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나, 최근 반정부 시위사태의 영향 등으로 3%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3~07년까지 연평균 2.8%의 양호한 수준을 보여 왔으나, 이후 국내 수요증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음.
- 2011년에도 원유 및 식료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소요사태 진정을 위한 공무원 임금 인상 조치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5%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알제리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중 하나로 프랑스,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2011년에 밀 가격은 전년 대비 3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는 수년간 흑자기조를 유지 하여 왔음. 그러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확대 재정정책 시행에 따라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는 -5.5%를 기록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10년에는 원유가격 상승과 원유생산량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이 확대 되었으나, 경기부양과 실업률 감소를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지속으로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었음. 그러나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 수준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위 사태 안정을 위한 임금 인상,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경제 유효책 시행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향후 5년간 2,86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산업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정부의 산업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산업이 총 GDP의 46%, 재정수입의 77%, 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알제리는 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에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석유산업은 전통적으로 수출의 약 96%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원유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그 비중이 98%로 상승함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음.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

- 알제리는 2009년 확인매장량 기준 122억 배럴의 원유(세계점유율 0.9%, 세계 17위, 아프리카 4위)와 4조 5,000억 m³의 천연가스(점유율 2.4%, 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임.
- 알제리는 OPEC 회원국이자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회원국임.
 - * GECF는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모임으로 OPEC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며, 2001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8년 정식 기구가 되었음. GECF 가입국은 러시아, 이란 등 14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은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아연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다. 정책성과

□ 공기업의 민영화 부진

- 정부는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현재까지 미흡함.
 - 2002년 테마르 (Abdelhamid Temmar) 민영화 장관은 정부소유 기업 중에서 민영화 대상 100개 기업 리스트를 공개했으나, 2003년 초 사회노조(Union Generale des Travailleurs Algeriens: UGTA)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테마르 장관이 사퇴하고 민영화 계획은 중단되었음.
 - 2005년 5월 테마르 전임 장관이 내각에 복귀하면서 민영화 추진 재개를 예고하였으나, IMF로부터 민영화 분야의 이행 진척도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그 이후로도 민영화 추진은 활발하지 못하였음.
- 알제리의 민영화 추진실적은 2000년 5월의 독일 세제생산기업 헨켈 (Henkel)의 국영세제기업(Entreprise nationale des detergents) 인수, 2001년 10월의 인도 이스파트(Ispat)의 국영제철기업 Sider 매수, 2005년 4월의 스페인 Villa Mir 그룹의 2개 국영비료공사 매수, 2007년 6월 독일 Linde의 국영가스회사(Entreprise nationale de gaz industriels) 인수 등에 불과함.
- 정부는 2007년 국영통신기업인 알제 텔레콤(Algerie Telecom)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09년에 이를 철회하였음. 또한 알제리 3대 국영상업은행 중 하나인 국민신용은행(Credit populaire d'Algerie: CPA)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 비석유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적극 추진

- 정부는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에는 비석유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원유, 천연가스 등의 판매 수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기조 지속

- 상품수지는 2008년까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9년에는 원유가격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인해 흑자규모가 대폭 축소된 78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수출은 고유가에 힘입어 2003년 245억 달러에서 2008년 786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수입은 식료품 수입증가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증가에 따라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 2010년에는 국내 수입수요 증가와 식료품 및 건설자재 등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를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1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기준 알제리의 최대 교역상대는 EU로 수출의 48%, 수입의 49%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등임.
 - 알제리와 EU 간 자유무역협정이 2002년 4월 체결되어 2005년 9월 발효되었으며, 알제리산 천연가스는 유럽국가의 천연가스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08년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20%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0.12%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DP 대비 3% 중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도 흑자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소득수지는 외국 기업들의 이익금 송금 증가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유 및 가스산업 개발과 관련한 서비스 지출 증대로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한편, 경상이전수지는 해외 근로자 송금에 힘입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상품수지: 405억 달러(2008) → 78억 달러(2009) → 178억 달러(2010)

·서비스수지: -76억 달러(2008) → -87억 달러(2009) → -102억 달러(2010)

·소득수지: -13억 달러(2008) → -13억 달러(2009) → -34억 달러(2010)

·경상이전수지: 28억 달러(2008) → 26억 달러(2009) → 10억 달러(2010)

□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증가와 외채상환부담 경감

○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03년 334억 달러에서 2010년 1,629억 달러(수입 34개월분)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한 이익 초과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등 대외 부채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03년에 GDP의 34.6%를 기록하였던 총외채잔액은 2006년 이후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말에는 2.7%(41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28,824	30,425	34,231	160	5,200
경 상 수 지 / GDP	24.6	22.5	20.0	0.1	3.4
상 품 수 지	34,180	34,178	40,520	7,784	17,766
수 출	54,741	60,591	78,590	45,186	56,050
수 입	20,561	26,413	38,070	37,402	38,284
외 환 보 유 액	78,208	110,627	143,544	149,347	162,915
총 외 채 잔 액	5,722	5,794	5,825	5,345	4,075
총 외 채 잔 액 / GDP	4.9	4.3	3.4	3.9	2.7
D S R	21.9	2.0	1.4	2.8	2.0

자료: IMF, EIU.

- 또한 DSR이 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와 풍부한 외환보유액 규모를 감안할 때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정권기반 강화

-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은 2009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어 3선에 성공하는 등 그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2004년 실시된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음. 또한 2008년에는 대통령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는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3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국방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젊은 장교들과 친위 세력을 군 요직에 전면 배치하는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정치적인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 시위 발생

-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 튀니지, 이집트와 비슷한 조건을 지닌 알제리에서도 2011년 1월 초부터 실업, 물가상승 등에 항의하는 청년들의 분신자살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2월에는 2천~5천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음.
- 그러나 이들 시위는 튀니지, 이집트에서와 같은 강력한 추진력이 없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음.

- 시위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풍부한 석유재원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유화책 등을 발표한 것이 국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정부는 식료품 보조금 확대, 공무원 임금 인상, 기업인에 대한 면세 혜택, 빈곤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 등을 약속하였고, 2월 25일에는 19년 간 지속되어온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였음.
 - 민주화 보다는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야당 세력의 분열, 강력한 경찰 및 치안조직, 막강한 군부의 영향력, 독립전쟁과 내전을 겪으면서 생긴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 1954년부터 1962년까지 7년 간 지속된 독립전쟁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1990년 대의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국민들은 폭력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보다는 석유부문 종사자, 공공보건의 근로자, 통신업계 종사자, 소방관, 대학생, 종교지도자, 실업자, 의사 등이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관련 대책마련 등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시위를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3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감안할 때 실업대책 등 정부의 경제 지원책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시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슬람 무장 세력의 활동 지속

- 알제리에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AQIM(Al-Quaida in Islamic Maghreb)이 활동하고 있는 등 이슬람 세력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 부테플리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군의 대대적인 진압 등에 힘입어 과격 이슬람단체의 무장 투쟁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4월에도 AQIM이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슬람 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 등 서방국가와 관계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 경제 협력 및 외교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념 보다는 실리 위주로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알제리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9.11 사태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강화되었음.
- 전체 가스 소비량의 25%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유럽은 2007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며 에너지 무기화 움직임을 보이자 알제리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EU 가스 수입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알제리와 유럽 간 관계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됨.
- 과거 식민지 지배국이었던 프랑스는 알제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여전히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국가이며, 프랑스 내 알제리 이주민들의 자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큼.
 - 2009년 기준 프랑스는 알제리 수출의 8%, 수입의 19.6%를 차지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1994~96년에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에서 129억 달러의 외채에 대해 리스케줄링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고유가 지속으로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외채 상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특히 2006년 100억 달러의 외채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외채 규모가 GDP의 5%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는 등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2. 국제시장평가

□ 기존 국가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11년 3월 평가회의에서 알제리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3등급으로 유지하였음. 알제리는 2005년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이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S&P, Moody's, Fitch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알제리에 대한 신용등급은 아직까지 없음.

□ 주요 ECA 지원태도

- USEXIM: 전액 인수, 제약조건 있음
- ECGD: 중단기 인수 가능
- HERMES: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년 1월 15일 (북한과는 1963년 4월 18일 수교)

□ 주요협정: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1997), 문화협정(1997),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1999), 이중과세방지협정(2001), 해상운송협정(2003),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협정(2005), 형사사법공조조약(2006), 범죄인 인도조약(2007), 항공업무협정(2009)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와의 2010년 교역규모는 17.8억 달러임. 수출은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을 중심으로 14.9억 달러,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2.9억 달러를 기록함.

- 수출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전자제품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이 각각 33%, 84% 감소하면서 수입은 전년 대비 58% 감소하였음.

- 해외직접투자(2010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7건, 204,440천 달러
- 우리나라의 알제리 해외건설공사 수주액은 2010년 말 누계 기준으로 총 57억 달러이며, 2008년 17억 달러, 2009년 37억 달러, 2010년 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1년 5월에는 경남기업이 알제리 국영석유회사인 소나트락(Sonatrach)이 발주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플랜트시설 개보수 공사를 수주하였음.

<표 4> 한·알제리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863	1,095	1,496	자동차, 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
수 입	845	688	287	원유, 석유제품 등
합 계	1,708	1,783	1,783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OPEC 및 GECF 회원국인 알제리는 석유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음.
- 그러나 2011년 1월부터 고실업률과 물가상승 등에 항의하는 분신자살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며, 2월부터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였음.
- 시위 사태는 정부의 경제유화책 발표, 국가비상사태 해제, 강력한 경찰 및 치안조직을 통한 시위 진압 등 정부의 강온 정책과 시위대의 추진력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어 시위사태가 국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고실업률 등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정부가 약속한 경제 지원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위 확대 등 급격한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책임조사역 박대원 (☎02-3779-5723)

E-mail: parkdw@koreaexim.go.kr